



진취적 기상을 품은 제주로

제주에는 바다에서 들어온 기운을 받아 다시 바다를 통해 펼쳐내는 공간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 제주의 기운은 지혜와 통찰력, 진취적인 기상을 품어 더 기세등등하다. 제주 전체가 담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마치 그럴 수 있다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제주의 2024년으로 시선이 쏠린다. / 김상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전문성·역량 강화 “신뢰받는 의회로”

김경학 의장 신년 메시지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 집중,
민생경제 회복 목표로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우뚝 서겠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경학 의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4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갑진년은 청룡의 해다.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뜻하는 소망을 모두 이루며,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새해에도 장기적인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외풍이 거셀 전망”이라며 “우리 의회가 새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서며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하며, 제주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특히 “정책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은 제거하고, 끊어진 관계는 회복하며 도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새해에는 이웃의 손을 맞잡고 용기 있게 걸어 나가자”라며 “배려와 존중은 맞잡은 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제주공동체의 유대를 끈끈하게 만들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사무처장 오임수 부이사관

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에 오임수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자로 사무처 직원 48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오임수 사무처장은 지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총무담당관으로는 고경대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이, 의사담당관에는 강경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는 강영심 제주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농수축경제전문위원에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 관련 12면

지면안내

- 2~4 주요 이슈
- 5~7 생생 의정활동
- 8~9 새해, 제주도의회에 바란다
- 10~11 함께합시다
-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 희망찬 도약과 도민 무사안녕 기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국비 신규 확보

공동국비확보단 성과
12개 사업·213억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공동국비 확보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신규 확보된 국비는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사업 17억5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213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7건 126억원 대비, 5건 87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김경학 의장이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으로 입소 대기자가 많고, 시설 폐쇄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중증장애인 분들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으로 지속 건의하면서 신규 확보됐다.

또한 그동안 본회의 개·폐회사를 통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도민 사회 공감대를 끌어냈다.

김경학 의장은 “지속적으로 예산 절충을 위해 애써주신 오영훈 지사와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학 의장과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한 공동국비확보단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경학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분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국립제주호국원, 조천항일기념관 내 창열사,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분향·참배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은 이날 국립제주호국원과 창열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추모하고 제주도민의 무사안녕과 제주의 희망찬 도약을 기원했다. 이어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제주4·3의 세계화를 기원했다.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맞손 ‘성과’

31건 규제개선과제 발굴

“의회 제안으로 구성,
소기의 성과 내 뜻깊어”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T/F)’이 협업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은 지난해 3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성 이후 공동 T/F는 ‘제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했다.

규제개선 과제 중 중앙부처 건의 과제 19건은 해당 부처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했고, 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 12건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12건의 규제개선 과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저소득층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포용지원 정책 등이 시행

중이다.

19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 가운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제출서류 감축 △양식장 내 소수력발전설비 운용 시 전기안전관리자 겸임 허용 등 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수용해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 T/F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논리 보완 및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학 의장은 “의회 제안으로 어렵게 출발한 도와의 규제혁신 T/F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 뜻깊

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주의 투자환경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규제 혁신은 기업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는 등 지방규제혁신 공동 T/F 운영 등을 통한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 노력,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노력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경학 의장, 환경미화원 체험 ‘구슬땀’

지난달, 이도2동 일원에서
환경·처우 등 애로사항 청취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이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변신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26일 이른 새벽 이도2동 일원에서 환경미화원들과 가연성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다.

이번 환경미화 활동은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자 마련됐다.

김경학 의장은 “환경미화원분들은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라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2년 연속 기관 표창

지방과 대학 간 협력 ‘성과’

간담회 통해 제도개선 논의도 높이 평가
‘지역 발전 위한 의정활동의 결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기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 상생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교학점제 연계 프로그램 확대,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

로그램 지원 등 지방과 대학 간 협력사업을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지역국립거점대학인 제주대학교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8월 2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도 인재양성 모델 정립을 위한 지자체, 대학 및 기업 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도의회-제주대 연구 상생협력체계 구축 △지역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 교육학과 개설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이뤄낸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노력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현안 해소를 위해 소통하고 연구하며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포럼 정기총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활동 실적 및 결산내역 및 2024년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 정책발굴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털어드리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도민과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단체 등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아오모리현의회 교류 활성화 도모

10일 방문단과 면담 가져
2017년 우호교류 협력 체결
양 지역 간 교류 촉진 계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일본 아오모리현의회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은 지난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를 방문한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마루이 유타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양 의회 간 교류 재개 및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를 다시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제주의 역동성을 확인하



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장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2017년 체결한 우호교류 협력을 이어 나갔으면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신뢰를 강화하고,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마루이 유타카 의장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대

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그간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 의원 간 신뢰를 쌓고 유대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교류 촉진을 통해 양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회에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

당, 삼양·봉개동),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정이운 미래제주 원내대표(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읍)·강성익(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의원이 함께했다.



제주-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업무 협약

10일 업무협약 체결해
지방자치 관계 확장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원내대표 현기중, 성산읍)이 지방자치 협력 관계 확장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원내대표 김정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현기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황국 부의장(용담1·2동), 원화자 부대표(비례대표), 강하영 부대표(비례대표), 강상수 정책

위의장(정방·중앙·천지·서흥동),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이날 양 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대응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현기중 원내대표는 “새해 첫 업무협약을 경기도의회와 함께하게 돼 뜻깊다”라며 “광역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차원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권익위 청렴도 ‘3등급’

직전 평가보다 한 단계 상승
종합점수 전국 평균 웃돌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실시했던 평가 결과인 4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는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종합 점수는

77점으로 광역의회 평균 75.9점, 전국 광역+기초시의회 평균 68.5점을 훨씬 웃돌았다. 체감도 영역에서 72.5점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72.4점, 전국 광역+기초시의회 평균 66.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노력도 영역에서도 96점을 받아 전국 광역의회 평균 90.5점, 전국 광역+기초시의회 평균 77.2점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력도 영역에서는 의원과 사무처 공직자 전원 청렴교육 이수, 각종 행사 시 청렴결의 실시, 청렴송 제작 홍보 등을 통해 청렴 의식을 함양하면서 각종 부패발생 요인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경북도의회 예결위 교류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와 상호 교류 협

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호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예산결산심사 및 지방재정운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양용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호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 ‘정명’ 논의 필요... ‘사건’ 응답 높아

제주산 제품 우수성 중국서 홍보 나서

농수축경제위 심양 방문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심양을 방문해 제주산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대한 중국 판로를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제주산 농촌융복합산업 제품들을 코트라 선양 무역관 관계자에게 소개하며, 제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한 중국 내 판매를 도모하는 대리상과의 연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청정 제주를 담은 제주산 농축산물 가공식품 및 화장품 등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중국 출장 이후 코트라 선양무역관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 식품 수입유통 바이어가 한라산 소주의 수입 의사를 밝혀왔으며 연내 제주를 방문해 수출계약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새해 포부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새해를 맞아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지난해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 정책토론회와 타 시도의 어린이 생태놀이터 현장 방문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에 따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다음 달 학교복합시설 구축 벤치마킹을 위한 타 시도의 사례 조사를 시작으로 현 정부의 변화하는 교육 제도와 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등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으로 ‘4·3사건’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가 지난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회 4·3정답회,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에서 이같이 나왔다.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래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을 선정,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제주시민과 청소년,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도민, 청소년, 유족 모두 4·3의 적합한 이름을 ‘사건’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이 ‘사건’을 응답한 것은 49.1%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현재 4·3특별법 상의 정의가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가치중립적인 4·3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한권 위원장은 4·3 정명



4·3특위 도민인식조사서 “4·3특별법상 정의 영향도, 정명운동 방향성 정립 필요”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논의에서 ‘사건’은 가치중립적인 특정한 의미를 담지 못한 이름으로 인식이 고착화, 4·3 정명운동의 방향성 정립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제시했다.

또한 4·3 정명운동의 추진계획(로드

맵)의 수립과 4·3 정명 인식조사의 정례화 추진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권 위원장은 “4·3 정명은 제주4·3 평화재단에 있는 백비에, 통일의 그 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만큼 정의로운 해결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도민 인식조사를 계기로 4·3 정명운동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남은 활동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청년사회, 기회 불평등 이슈 부각돼”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창업 활동 지원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가 지난 1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 불평등 해소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 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이정엽(국민의힘, 대륜동)·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광희 (새제주 자치와 참여연구) 연구실장은 “2022년 말 제주 청년 인구(19~39세)는 전체 지역 인구의 24.1%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청년정책 5개 분야 980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며 “제주의 경우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9개로, 타 지역에 비

해 청년 관련 조례의 수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시행 성과의 전달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희 연구실장은 “뉴스 언급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의 경우 ‘복지’, ‘창업’, ‘노동’, ‘미래’는 높아진 반면, ‘안정’, ‘고용’의 언급량은 낮아졌다”면서 “제주지역 데이터에서 기회 불평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기회 불평등의 주 요인은 직업 선택 기회와 자산 형성의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업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상실감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이승아·한권 의원 이름 올려
김기환 의원 좋은조례 ‘우수상’



이승아 의원



한권 의원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5회 2023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에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이름을 올렸다.

이승아 위원장과 한권 위원장은 지난해 매니페스

토 지방의원 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었다.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린 이승아 위원장은 공약사항 11개 중 11개 모두를 이행하면서 재선의원으로서 경험이 뒷받침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민의 정주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교 보행길 개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비롯한 재정 확보 노력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아 위원장은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주민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 문제를 도민들과 함께 발굴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권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 최초로 1년간의 주민 보고 및 조정을 거쳐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역

사 왜곡 행위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활동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권 위원장은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성과 신뢰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민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으로 우범지역 감소, 안심 귀갓길 및 학생 등하 곳길 개선이 이뤄지면서 밤길이 안전한 제주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관 컨소시엄을 통한 국비사업 공모 추진 및 고효율 조명시설을 통한 유지보수비, 에너지 사용료 절감을 유도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기환 의원은 “어둡고 소외된 곳을 살피고, 밝게 가꾸기 위한 노력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제주도의회 7명 ‘우수 의정대상’ 수상

적극 의정활동 높이 평가
18일 표창 수여식 개최

양병우(더불어민주당, 대정읍)·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양홍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현기중(국민의힘, 성산읍)·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이 대한한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8일 의장 집무실에서 수상 의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상 의원들은 지난 한 해 제주도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삶에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앞으로 의원들의 우수한 활동상을 적극 발굴해 지방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수상 의원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참 일꾼으로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도민에 다가가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과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수상된다.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 방안 모색

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행다오시·텐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의원, 교육의원, 제주 시 서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진행다오시와 텐진의 교육기관 및 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서귀포시가 향후 5년간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국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서귀포시 자매결연 도시인 진행다오시의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교육국을 방문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중국 내 소수민족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과 소수 민족 이중 언어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해 도내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국외 교육 현장 조사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살아가는 도내 학생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다문화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 중심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지방자치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와 의정활동을 조사평가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 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승아 위원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내건 11개 공약을 이행하며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공약계획 및 실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을별 워크숍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주민과 함께 의제 발굴 및 해결 방법

을 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아 위원장은 “생활 정치는 미래의 마중물’이라는 정치철학으로 주민 행복을 위해 발로 뚫은 의정활동의 과정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더욱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지수, 도민의 행복정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분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 및 입안 활동을 한 의원들을 청소년이 직접 발굴, 추천, 선정,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재고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

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김기환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선정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청소년이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희망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기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정명의정대상’ 수상 영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최하고 정명대상조직위원회, 유권자 정책평가단, 국민선거감시단에서 주관하는 정명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광역단

체장에게 주어진다.

김기환 의원은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기환 의원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2023년 의정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면서 “올해에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메라기자회 선정 ‘올해의 의원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제주카메라기자회가 뽑은 ‘올해의 의원상’에 선정됐다.

지난 15일 KBS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에서 제주카메라기자회가 뽑은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양영식 의원이 상패를 전달받았다.

강홍주 제주카메라기자회 회장은 “양영식 의원은 100%의 높은 본회의 출석률과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지원 조례 등 14건의 조례안 대표발의, 65건의 공동발의 등 79건의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카메라기자협회에서 선정해 준 ‘올해의 의원상’은

제주지역에서 주는 상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제주다움’을 잃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는 본회의 출석률과 조례발의 건수를 합산해 6명을 우선 선정한 뒤 주요 의정활동,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수상 경력 등으로 3명을 추려내고, 제주 카메라기자회 회원들의 비공개 전체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양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연동갑

한국ESG대상 개인부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한국ESG학회·국회ESG포럼이 주최·주관한 ‘제1회 한국ESG대상’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대상은 한국ESG학회가 국가 생물다양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학교, 병원, 개인 등 주체별 ESG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ESG경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제주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최초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등 환경분야에서 ESG 확산에 기여한 의정활동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양영식 의원은 “ESG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고, 법과 정책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ESG의 가치를 개인과 지역 사회에 확산시켜 제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자 해와달 삼계탕 대표 (제주시 일도2동)

새 희망을 품은 갑진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값진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19를 지나 엔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고물가에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란 뉴스를 볼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론에서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는 용맹함과 지혜,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처럼 모두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저를 포함해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홍석진 제주시 기획예산과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마트에서 장보기가 무섭고, 가족 끼리 밖에 나가 외식 한번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재료비와 인건비에 가격을 올려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한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문을 닫는 가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에 잘 스며들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삶의 어려움은 극복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불어, 함께,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제주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준식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지회장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클린하우스 관리 등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끌며 소득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평소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예산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일자리, 노인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저도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김영지 경력있는여성들협동조합 대표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여러 전문가가 모여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는 돌봄 이슈와 떼놓을 수 없기에 부처를 뛰어넘는 전방위적 지원, 경력 단절 인재들을 돌봄 사각지대의 활동가로 선순환시키는 민간 모델에 대한 지원, 개인의 일, 건강, 가족, 성장을 아우를 수 있는 제주형 공간 모델의 필요성 등이 대두됐습니다. 위 이슈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시, 공동체의 소멸은 불가피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도 강성의, 박호형, 정민구, 현지홍, 홍인숙 의원 등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꽃을 피워 제주만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기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민자 제주연극협회 회장

저희 제주연극협회에서도 지난 한 해 굵직한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와 제2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제주를 치렀는데,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이 올해에도 시들지 않고 쭉욱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습니다만 연극은 특히 관객의 지지, 격려,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가뜰이나 올해 문화예술 예산이 줄어들어 우리 연극계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문화비를 줄이는 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뽀빠한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건 예술 체험, 향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진 제작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펼칠 날이 새해에는 오기를 희망합니다.

2024 제주도의회에 바란다!



이현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제주 청년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학업과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청년들의 '타 지역 행' 선택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앞두고 저는 물론 주위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는 청년층의 순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더 나은 취업 환경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의 이런 고민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많은 기회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새해 갑진년이 모두에게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내길 응원합니다.



이상희 제주시 애월읍 다자녀가정

남자아이 셋을 둔 다둥이 엄마입니다.

행복감이 컸던 처음과 달리 아이들이 커가고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평범한 가정에서 키우는 흔히 고민하는 재정적인 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하는 학습의 형태를 저희 가정 또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자녀라는 혜택은 아주 미미합니다.

매월마다 감당해야 하는 학원비는 가계에 타격이 되어 불만의 가중이 점점 증가됩니다. 물론 상황들은 다릅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신문에서 대학등록금 면제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비 지원 관련 정책도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다혜 제주여고 1학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해로 불리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업 경쟁 속에서 우리 마음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올해 2학년이 되면서 학업적인 면에서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큼니다. 학업에 집중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매 순간 어려운 고비도 오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을 키우겠습니다.

2024년 모두가 행복해지길 기원하며 청소년 모두가 파이팅을 외쳤으면 합니다.



김현수 하귀초등학교 교사

2023년은 교육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권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져 수많은 교사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공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보는 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학교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들, 교육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학부모님 모두가 2024년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발전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되어 교육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경란 국제로타리3662지구 2022~2023년도 총재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사업과 장사, 생활이 모든 힘든 시기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져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올 한 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어려운 시기, 생활고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지역을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나눔과 기부, 봉사의 미덕을 확산시켜 따뜻하고 정 많은 모두가 살기 좋은 제주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서 지역사회와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을 꽃피우고 나눔의 향기가 퍼지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한 분 한 분이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과 제주의 발전을 고심하시어 도민들로부터 모두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제주도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트콘, 문화관광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 17.(수) ~ 2. 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신기한 제주어 ㉘

단들이다

(동사)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다

〈예문〉
“나나야, 는 물아기때부떠 부무 털찌레 정흔흔 사름이 시난, 허다 톤 소나
이 생각은 말라이? 그 집이서도 초초 출려가는 생이라라. 요라번 단들염시
메 궁통이에 잘 낚뎡겨산다”
“(소곱으로만) 나 무심엔 모모옴빠 백이 웃인디게 어떻흔 좋으코”

· 는 : 너는

· 물아기 : 물애기

· 곤애기 : 갓난 어린 아기

· 부무, 부미 : 부모

· 찌레 : 끼리

· 시난 : 있으니까

· 허다, 하다 : 어떤 일이 있더라도

· 톤 : 다른

· 초초, 초초이 : 차차

· 출리다 : 준비하다

· 생이라라 : 모양이더라

· 요라번 : 여러번

· 궁통이 : 의견이나 생각

· 낚겨산다 : 다녀야 한다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 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 회	총 127일 · 정례회 2회 / 39일 · 임시회 9회 / 88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5일 공휴일 30일	
2월	제424회 임시회	2.19.(월) ~ 2.29.(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제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425회 임시회	3.19.(화) ~ 3.27.(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26회 임시회	4.15.(월) ~ 4.26.(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427회 임시회	5.14.(화) ~ 5.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공휴일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428회 제1차 정례회	6.11.(화) ~ 6.26.(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429회 임시회	7.1.(월) ~ 7.3.(수) (3일)	본회의 3일	·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제430회 임시회	7.15.(월) ~ 7.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431회 임시회	9.2.(월) ~ 9.13.(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32회 임시회	10.4.(금) ~ 10.24.(목) (2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1.12.(화) ~ 12.4.(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6일	· 2025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34회 임시회	12.10.(화) ~ 12.16.(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3일

“학령인구 감소 대비해야”



김 대 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7년에는 30만명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제주

지역도 문제가 심각하다. 2007년도에 8천명 남짓이었던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올해는 6천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2028년도에는 4천명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히 그리고 지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이슈이며 모든 정책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도 전반적인 변화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의 축소 운영 및 초등학교 존립에 영향을 주고 교원수급과 교육시설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교육의 변화와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방법과 평가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 국제화와 협력을 통한 교육 경쟁력 향상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실 수업의 획기적 개선과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교육재정 변화 흐름에 따른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023년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제도를 학생 수요에 맞춰 교육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연

구와 논문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과 사회 맞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발전을 염두에 둔 신개념인 학교복합시설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언급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행정 대변화 흐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 공제받으세요

노 은 주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자동차세는 매해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런 자동

차 세금을 1월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값지게 한 해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납을 올해 1월에 신청할 경우 4.6%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가량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경우에

만 연납 고지서가 교부되며 기존에 이미 신고·납부를 했던 차량이라면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보내니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수령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연납 신청했던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시 연납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가 교부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후 그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해도 남은 기간

만큼 일괄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소소하지만 값진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ARS(1899-0341) 전화로도 가능하다. 신청해도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기에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

문 영 상

제주서부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올해 사용한 농기계를 내년에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 기계에 따라 요령이 있겠지만 공통 사항에 대해 적어본다.

첫째, 엔진과 몸체는 닦고 기름칠고 깨끗이 청소한다. 엔진과 부속품에 끈이물질, 펌프와 호스 내부 농약, 모래, 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각 기계의 회전부, 작동부, 마찰부, 케이블 등에 새 오일과 그리스를 주입한다.

둘째, 엔진오일, 냉각수, 부동액을 점검한다. 엔진오일 교환 후 5~10분 정도 공회전시켜 각 부위에 오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냉각수를 제거한 후 잘 보이는 곳에 ‘물 없음’ 꼬리표를 부착해 냉각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

가 없도록 주의하고 새 부동액을 공급하거나 농도를 확인한 후 보충한다.

셋째, 습기가 적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에 보관한다. 농기계는 실내 보관해야 녹슬지 않는다. 보관 중 창문을 닫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머플러가 식은 뒤 덮개를 씌운다. 고무바퀴가 눌리지 않도록 공기를 더 넣거나 몸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받쳐주되 굴러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넷째, 연료 종류에 따라 연료를 정비해 보관한다. 디젤(경유) 탱크는 연료

를 가득 채워 보관해야 다음 사용 시 연료 부족으로 인한 에어 빼기나 수분으로 인한 녹슬음이 없다. 반대로 가솔린(휘발유) 탱크는 연료를 모두 빼고 시동을 걸어서 기화기에 있는 모든 연료를 없앤다.

귀찮기도 하고 습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위의 보관·관리 요령을 잘 지킨다면 작업 중 기계 고장에 따른 불편 없이 농업의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제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



2일 2024 시무식 개최 새해 응원 메시지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시무식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 이벤트’로 용띠 직원들이 갑진년 새해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어 새로운 도전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하는 복주머니 전달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의원 및 전 직원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경학 의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민의 삶에 더욱 다가설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력도 강화해 도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

22일 대회의실에서 개최 “서로에게 힘 보태줘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임 의회 사무처장으로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총무담당관에 고경대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의사담당관에 강경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 강영심 제주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에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무대리가 승진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입법지원팀장은 강태석 사무관이,

사무관 승진 의결자인 김만희 주무관은 기록팀장 직무대리, 김선주 주무관은 정책연구팀장 직무대리, 신미옥 주무관은 미디어팀장 직무대리에 각각 임명됐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다. 최대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쓴소리를 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 사무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세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의사담당관 의정홍보 ‘최우수’

2023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의사담당관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장 집무실에서 2023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및 기고왕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에는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이 선정됐다. 기고왕에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김만희 주무관, 의사담당관실 신미옥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

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라며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의는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고 도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반기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이뤄지고 있다.

6기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23년 활동 성과 보고 및 2023년 옴부즈맨 활동 계획 등을 설명했다.

옴부즈맨은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지역

개발·주민복지에 관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는 제도로, 2023년에는 37건의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김경학 의장은 “옴부즈맨은 의회와 도민을 연결하는 가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시민 감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24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뛰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